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12 윤삼촌네 밥이야기 3

겨울별미, 굴 - 밥은 배움

정신분석학 수업을 들으러가는 발걸음이 오 늘따라 더욱 설렌다. 지난주에 계획한 대로면



겨울별미 굴을 봄동과 물미역에 곁들여 먹으면 그 맛이 배가 된다.

삼촌이나 언니들이나 나의 속사정과 다를 바 없을 터.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살림계의 지

보태니. "쫄개밥. 쫄개면 또 달라져"라는 응수 가 돌아온다. 왕년 목사님의 이력에 강사의 말

"굴전을 할 땐 전이 다 익을 때 굴을 올려야 굴 맛이 사는 거예요"

원실 언니가 비법을 알려주는 사이, 왕언니는 봄동과 물미역을 곁들인 생굴 보쌈을 두 접시

봄동과의 해후에 더욱 감복하여 굴 보쌈을 제대로 먹는 부산식 비법을 공개하며

"이런 걸 많이 먹어야 건강한 거야. 자, 교양 떨지 말고

오늘의 밥상주인인 굴은 전날 택배로 일찌감치 도착해 삼촌네

"내가 어젯밤에 보다 못해 살짝 먹었잖아. 한 찰팍씩

찰팍씩 개는 먹고 싶네." 침팍씩 개가 '살짝' 아니라 언뜻 남들이 가지 않는

"우선 김 여사님한테 하고 싶은 말은 '넓게 넓게 하늘을

"그런데 나는 그냥 넓게도 아니고 넓게 넓게네. 따블로

언니들의 입심에 힘입어 막내나 나도 질 세라 "꼭으로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입을 크게 벌려 '아' 해봐요. 씹 먹을 땐 교양 떨면 들어가지도

평소 밥맛이 부실한 하경 언니를 위해 특별히 윤 삼촌의

"시막에 가면 물미역을 데쳐 나물을 하는데 한 여덟 가지

왕언니는 봄동에 된장을 올려 씹 싸먹는 재미에 빠져 "아구

은 하경 언니도 오늘은 밥맛이 절정에 달해 "어째 우리 공부보다

그새 굴전 세 판에 굴 보쌈 두 접시가 동이 나고, 굴의 비릿한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행복한 삶을 위한, 신과 심신건강 身心健康 19 향기요법 박지숙 박사 한·양방 의료센터 salm 마인드힐링연구소

심신의 건강과 깨달음 선사하는 향기요법

# 향기로 건강과 깨달음을?

향기로 깨달음을 도모할 수 있을까?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으리라

유마힐 거사가 중한 보살에게 물기를 "향적부처님께서는 어떤

향을 맡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거북한 향을 맡으면 마음이 불쾌한

향기요법이란 향기가 지닌 바로 이러한 힘을 이용해 치료하는

# 향기요법의 적용방법 및 효과

가장 쉽게 일반인들이 실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램프확산법,

향기요법은 임상적으로 볼 때 코막힘이나 콧물, 감기, 호흡기

코나 머리는 물론 목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은 물론 증세도 크게

불면증에는 라벤다, 캐모마일 오일 등을 베게에 뿌려두거나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등이 심할 때에는 일랑 일랑, 클라리세이지

운전 중 졸음을 방지하거나 상쾌한 기분, 두통 등에는 레몬이나

만성피로에는 라벤다, 주니퍼 등의 오일을 이용해 족욕을

근육통에는 페퍼민트를 호호바 오일 등에 섞어 마사지

# 향기요법의 주의사항

향기요법은 임신부나 혈압이 높거나 낮은 사람, 천식환자

# 향기요법(Aroma Therapy)이란?

삶에 기적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과 운명을 바 꾸 주는 "기도의 비밀" 한 번의 인연으로 미래가 보입니다. 꼭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위하여 어떤 기도로 어떻게 성취 하는가?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STT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이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능인향당 이완로 처사의 침향 이야기 14

침향은 부처님 복장의 대명사

침향은 복장 공양물로 반드시 올라야 되는 첫 번째 물품이다. 불상은 조성을 마친 후



해인사 법보전 비로자나불과 복장으로 나온 침향.

뒹한 기를 침향이 물리친다는 뜻이다. 중동지역이나 동남아 지역에서는, 초상집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의 공기 중에는 으레 많은 점염성 병원균이 존재한다. 몸이 건강할 때는

동서양을 불문하고 최고의 향으로, 약재로 인정 받아온 침향은 더욱이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혜택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주지스님께 권합니다 지장보살님의 가피아래 태아영가를 정성과 사랑으로 품어 안고